

보도자료

2011년 1월 13일(목)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전파연구소 녹색인증제도과 안근영 과장(☎710-6600)
녹색인증제도과 정삼영 연구관(☎710-6595) sychung@kcc.go.kr**전파연구소, 국제 ITU 기후변화 표준회의의 국내 유치**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소장 임차식)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전파환경 및 기후변화 표준화 회의(ITU-T SG5)를 금년 9월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ITU-T SG5는 방송통신기술의 저탄소화와 이를 다른 산업에 적용하여 저탄소화를 이루기 위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영국 등 30여개의 회원국과 프랑스 텔레콤, 미국 애플 등 30여개의 사업자 회원으로부터 250여 명의 국내외 표준 전문가가 참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인터넷데이터센터의 그린화를 위한 녹색진단 표준화 작업 등 7개 분야의 표준화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터넷데이터센터 그린화 표준과 ICT 폐기물에서의 회소금속 재활용 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어 인터넷데이터센터의 녹색화와 방송통신제품 재활용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SG5 국제회의를 유치함으로써 방송통신기술과 기후변화에 관하여 국내 제조사, 방송통신사업자 및 정부의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 표준화를 통한 우리 녹색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가 예상된다. 끝.

주요용어 설명

1. ITU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는 국제연합 산하의 정보통신 전문기관으로 정보통신 관련 국제협약, 표준제정 등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음

2. 국제 ITU 기후변화 표준회의

ITU는 기후변화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2009년 5월에 “국제 ITU기후변화 표준회의”를 공식발족 하였으며 이 회의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온실가스과 전력소모량 감축을 위하여 표준화기획, 기후변화 대처방법론, 저탄소 전력공급시스템, 정보 통신기기 재활용, 에너지절감 분석 등에 대한 표준문서를 개발하고 있음

3. ITU-T SG5

ITU-T SG5는 ITU의 표준화 연구반으로 기후변화 작업반 등 3개 작업반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 1 작업반은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낙뢰 등 전자기적 위험으로부터 인명과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제 2작업반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전자파적합성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제 3작업반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송통신 기술의 저탄소화와 이를 다른 산업에 적용하여 저탄소화를 이루기 위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4. 에디터

ITU-T 국제표준화 그룹 각 영역에서 표준화 아이템별 표준화 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각 표준화 문서 작업을 총괄하여 담당함

5. 데이터센터

전기먹는 하마라고 불리는 데이터센터는 인터넷사업에 필수적인 고속 인터넷접속, 정보시스템 관리 등의 대행이 이루어지는 집적된 정보통신 시설로, 서버 운영에 가장 적합한 온도, 습도, 무균 및 보안설비를 갖추어 가장 안정적으로 서버를 관리할 수 있음

6. 희소금속

천연의 존재량 자체가 적은 금속, 순수한 금속으로 추출하기 힘든 금속 등으로 바륨, 베릴륨, 갈륨 등이 있으며, 이 희소금속은 휴대폰을 비롯한 첨단기술산업 등에 이용되고 있음

7. 7개 분야 표준화 작업문서와 에디터

표준화 작업문서	에디터
ICT 제품·서비스GHG 배출량 산정표준화	에디터 (ETRI 임정일)
ICT 활용 온실가스 감축사업 감축량산정	에디터 (ETRI 김용운)
ICT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에디터 (RRA 정삼영)
ICT제품의 희소금속 재활용 정보제공 표준화	에디터 (생기원 김택수) 에디터 (ETRI 김은숙)
그린 IDC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화	에디터 (TTA 김주영)
인터넷데이터센터 녹색진단 표준화	에디터 (NIA 이상학)
인터넷데이터센터 DC 전원공급 표준화	에디터 (KT 이인섭)